

I Love Korea 청소년 역사·문화 대장정

포천문화원, 관내 中學生 40여명 대상으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8월 12일부터 3박4일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관내 중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탐방 대장정을 실시했다.

이번 대장정은 충청남·북도 일대를 답사 코스로 정하여, 웅대한 고구려의 기상과 찬란한 백제 문화를 탐방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우리의 고구

려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이의 연관된 백제의 찬란한 문화 유적을 함께 체험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동안 문화유적 보호 및 나라사랑 캠페인도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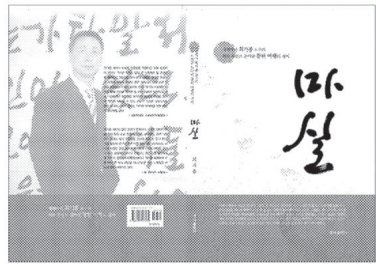


포천문화원은 8월12일부터 3박4일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관내 중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탐방 대장정을 실시했다.

신간안내

재미있는 지구촌 '마실' 이야기

경북대 관광과 최기종 교수의 여행이야기



참된 여행의 재미를 시와 수필로 풀어 쓴 '마실' (최기종, 253p, 13,000원, 경덕출판사)은 지구촌 곳곳을 열 마을 다니듯 누비고 다니며 체험한 작가의 소중한 여행이야기들을 엮은 책이다.

마실이란 마을의 방언이다. 옛 사람들은 열 마을로 놀러 다니는 일을 '마을 간다' 또는 '마실 간다' 라고 표현하였는데, 작가 최기종 교수는 가까운 마을로 놀러 다니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여행 전문가인 최기종 교수는 국의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1982년도를 시작으로 이후 90여 나라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남들이 접하지 못하는 경험을 우선하여 체계적인 체험여행 컨설턴트이다. 대학에 몸

담고 있으면서 여행 관련업에 종사하는 제자도 많이 배출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인과 수필가로 활동하는 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간결하고 감미로운 언어로 지구촌 곳곳을 소개하고 있다. 어렵게 다닌 여행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민 덕분에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서시를 통해 작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된 여행자가 되어 홀로 긴 여행을 즐기고, 늘 희망찬 새벽을 꿈꾸며, 방랑의 유혹을 퍼 마시는, 수려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제1부에서 '여행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들자며 독자를 향해 손짓하고, 제2부에서 '평범한 여행은 가리'는 심오하고 힙한 주문을 전하며, 제3부 '특별 기억창고'에서는 여행의 숙성된 진미를 맛보게 한다.

갈수록 재미있는 '마실' 이야기를 읽어 가는 동안, 힙한 세월을 잊고 긍정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익숙해진다 보면, 세상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12

청하읍건대 신의 벼슬을 깎아주십시오



이호종 한국한시학회 포천지회장

민진원(閔鎭遠)은 인현왕후의 오빠인데, 윤지완의 딸에게 장가 들었다. 그때 윤지완은 정승으로 사용원(司書院)도 함께 책임지고 있었다.

어느날 윤지완은 새벽 일찍 임금의 부름을 받고 대궐에 나갔다가 관사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마침 사위 민진원도 한림원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윤지완은 아침을 먹고 난 후 밥상을 물리다가 생전복 한 그릇을 보고 문득 밤새 고생한 사위를 떠올렸다. 그리하여 윤지완은 남은 생전복을 거두어 사위에게 보내면서 말을 전했다.

"생전복이 아주 많았으니 한번 맛보도록 하라."

그러나 전복을 받은 민진원은 이를 다시 돌려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제 밥상에도 생전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려보냅니다."

윤지완은 그 말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용원을 책임지고 있는데 생전복이

한림원으로 갔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윤지완은 경연 자리에 나아가 임금께 이뢰었다.

"신은 바야흐로 사용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의 사위 민진원이 마침 한림원 숙직을 하고 있어서 신의 밥상에 놓았던 생전복을 보내어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위의 밥상에도 생전복이 올라왔습니다. 신의 사위는 종전까지의 오빠이니 누군가 사사로이 생전복을 꺼내 그의 밥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신은 사용원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사

로이 임금의 인척에게 생전복을 먹였으니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청하읍건대 신의 벼슬을 깎아주십시오."

윤지완(尹趾完) 1635년(인조 13)~1718년(숙종 44).

본관은 파평이며 자는 숙린(叔麟), 호는 동산(東山)이다. 1657년(효종 8) 사마시를 거쳐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올라로 급제한 후 요직을 거쳤다. 1675년(숙종 1) 유배중인 송시열을 변호하다가 남인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1680년 남인이 실각하자 다시 등용되어 경상도와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다. 이후 여염대장, 예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나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함에 따라 유배되었다. 1694년 소론이 등용됨에 따라 다시 관직을 얻어 우의정을 지냈다. 청백리로 뽑혔으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011-242-197>

뮤지컬 이야기 #60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 1957)>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죽음을 선택하는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종종 소설이나 드라마의 소재로 차용되고 있다.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이러한 소재로 현재까지 발표된 최고의 작품을 선택한다면 단연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이 압도적일 것이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가 쓴 5막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1594년경에 발표되었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도 으뜸급으로 강렬한 비극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몽테규가와 캐플릿가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인해 양쪽 집안의 자녀인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패러디되기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토대로 만든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는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진다. 비록 두 연인이 죽는 셰익스피어의 원작과는 다르게 엔딩에서 로미오(토니Tony)는 죽고 줄리엣(마리아Maria)은 살지만 기념비적인 현대 뉴욕 맨하탄(Manhattan)을 무대로 한 1950년대 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원수지간으로 대립하는 두 가문은 푸에르토리코 계와 다문화 이민 계인 두 불량 청소년 그룹으로 대체되었다며 장소도 빈민가로 바뀌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특히 비극적 스토리와 함께 아름다운 경이로 가득 차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패러디되기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토대로 만든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는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진다. 비록 두 연인이 죽는 셰익스피어의 원작과는 다르게 엔딩에서 로미오(토니Tony)는 죽고 줄리엣(마리아Maria)은 살지만 기념비적인 현대 뉴욕 맨하탄(Manhattan)을 무대로 한 1950년대 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원수지간으로 대립하는 두 가문은 푸에르토리코 계와 다문화 이민 계인 두 불량 청소년 그룹으로 대체되었다며 장소도 빈민가로 바뀌었다.

뮤지컬의 전환점

양한 악기들이 동원되었으며 각종 치임(Chimes)들과 공(Gong) 종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강렬한 음악과 제롬 로빈스(Jerome Robbins)의 안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이내믹하고 정열적인 음악에다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숨죽이듯 강렬한 댄스 조화를 이루어 독창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사람이 주축이지만 불량 청소년들을 등장시켜 미국의 인종갈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문제를 다룬 어두운 테마, 복잡하고 정교한 음악, 광범위한 댄스 장면들은 미국 뮤지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이 담당했는데 특히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 1930~)이 작사가로서 브로드웨이에 화려하게 데뷔한 작곡가로서는 유망하다. 당시 레너드 번스타인은 클래식 지휘자와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유명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지낸 정통 클래식 음악가였다. <온 타운(On the Town, 1944)> 이후 뮤지컬 작곡가로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뮤지컬 <캔디드(Candide, 1957)>를 남기기도 했지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계기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번스타인은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들을 편성해놓았는데 오케스트라를 가장 폭넓게 사용한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비올라를 제외한 현악기와 탬버린, 일렉트릭 기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악기들이 동원되었으며 각종 치임(Chimes)들과 공(Gong) 종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강렬한 음악과 제롬 로빈스(Jerome Robbins)의 안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이내믹하고 정열적인 음악에다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숨죽이듯 강렬한 댄스 조화를 이루어 독창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사람이 주축이지만 불량 청소년들을 등장시켜 미국의 인종갈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문제를 다룬 어두운 테마, 복잡하고 정교한 음악, 광범위한 댄스 장면들은 미국 뮤지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이 담당했는데 특히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 1930~)이 작사가로서 브로드웨이에 화려하게 데뷔한 작곡가로서는 유망하다. 당시 레너드 번스타인은 클래식 지휘자와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유명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지낸 정통 클래식 음악가였다. <온 타운(On the Town, 1944)> 이후 뮤지컬 작곡가로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뮤지컬 <캔디드(Candide, 1957)>를 남기기도 했지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계기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번스타인은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들을 편성해놓았는데 오케스트라를 가장 폭넓게 사용한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비올라를 제외한 현악기와 탬버린, 일렉트릭 기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악기들이 동원되었으며 각종 치임(Chimes)들과 공(Gong) 종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강렬한 음악과 제롬 로빈스(Jerome Robbins)의 안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이내믹하고 정열적인 음악에다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숨죽이듯 강렬한 댄스 조화를 이루어 독창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사람이 주축이지만 불량 청소년들을 등장시켜 미국의 인종갈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문제를 다룬 어두운 테마, 복잡하고 정교한 음악, 광범위한 댄스 장면들은 미국 뮤지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이 담당했는데 특히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 1930~)이 작사가로서 브로드웨이에 화려하게 데뷔한 작곡가로서는 유망하다. 당시 레너드 번스타인은 클래식 지휘자와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유명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지낸 정통 클래식 음악가였다. <온 타운(On the Town, 1944)> 이후 뮤지컬 작곡가로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뮤지컬 <캔디드(Candide, 1957)>를 남기기도 했지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계기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번스타인은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들을 편성해놓았는데 오케스트라를 가장 폭넓게 사용한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비올라를 제외한 현악기와 탬버린, 일렉트릭 기타에 이르기까지 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봉사(奉仕)도 예술이다

수 세기 전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 때 사람은 갈수록 바다로 나갔다. 그 선두 탐험가가 콜롬버스의 범선인 아비엔가!

그 결과 사람들은 지구본에 점을 찍고, 오름을 누고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모험을 통하여 새로운 대륙과 더 넓은 세상을 갈망하고 나라의 동지를 지키며 땅 뺏기 놀음에 투신을 하여왔다. 그처럼 인간들은 욕망을 채우며 진취적 비상을 꿈꾸며 살았다.

고대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주요 관심사는 땅 넓히기와 먹거리와 투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 간에는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지혜를 내놓으며 살아왔다. 거슬러 올라가 농경시대의 노동은 노래와 감사의 표시로 영고 라는 것이 행하여졌고, 또한 협동하는 노동으로 '두레'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농약과 품앗이의 근원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사람들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가치를 살도 찬양해 왔다. 지금처럼 다양화된 계층과 삶의 터전에서는 더 넓은 인간애를 발현한다. 그것이 인간의 봉사와 헌신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고귀한 인간 문화의 실천인가.

얼마 전 포천연서회관에서 '포천시상록회'라는 봉사단체가 출범하는 창창한 것발을 보았다. 정갈 가슴 저린 감동을 여했다. "내 마음을 믿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남에게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기성과 비전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자아성찰의 모습이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깨닫고 이유와 목적으로, 아니 왜 사는가의 해답을 일러주는 정신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의 계단은 험난하고 고생스럽다. 그 계단을 오르며 목발이 되고, 집꾼이 되고, 머슴이 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제 자식 기저귀 같이 주기도 힘든 세상에 보통 사람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사신을 꺾는 일이 늘음으로써의 막걸리 주전자 심부름쯤이겠는가. 그들의 의지와 나눔은 대단하다. 찬란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

오늘날 얼핏 보기에 종교계나 여러 사회단체에서의 왕성했던 활동들이 다소 피로감과 몰살을 잃는 모습이다. 어떤 일든 능력의 고갈과 지속적 확장 없는 것은 있게 마련이다. 대강 보기에 자원이 없어 열의가 식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의 외형적 몸집은 점점 커가고

수 세기 전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 때 사람은 갈수록 바다로 나갔다. 그 선두 탐험가가 콜롬버스의 범선인 아비엔가!

그 결과 사람들은 지구본에 점을 찍고, 오름을 누고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모험을 통하여 새로운 대륙과 더 넓은 세상을 갈망하고 나라의 동지를 지키며 땅 뺏기 놀음에 투신을 하여왔다. 그처럼 인간들은 욕망을 채우며 진취적 비상을 꿈꾸며 살았다.

고대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주요 관심사는 땅 넓히기와 먹거리와 투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 간에는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지혜를 내놓으며 살아왔다. 거슬러 올라가 농경시대의 노동은 노래와 감사의 표시로 영고 라는 것이 행하여졌고, 또한 협동하는 노동으로 '두레'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농약과 품앗이의 근원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사람들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가치를 살도 찬양해 왔다. 지금처럼 다양화된 계층과 삶의 터전에서는 더 넓은 인간애를 발현한다. 그것이 인간의 봉사와 헌신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고귀한 인간 문화의 실천인가.

오늘날 얼핏 보기에 종교계나 여러 사회단체에서의 왕성했던 활동들이 다소 피로감과 몰살을 잃는 모습이다. 어떤 일든 능력의 고갈과 지속적 확장 없는 것은 있게 마련이다. 대강 보기에 자원이 없어 열의가 식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의 외형적 몸집은 점점 커가고

오늘날 얼핏 보기에 종교계나 여러 사회단체에서의 왕성했던 활동들이 다소 피로감과 몰살을 잃는 모습이다. 어떤 일든 능력의 고갈과 지속적 확장 없는 것은 있게 마련이다. 대강 보기에 자원이 없어 열의가 식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의 외형적 몸집은 점점 커가고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45)

'정력제(精力劑)' 이야기

20년 전, 농촌 지도소에 근무하던 모 지도사가 신부편(당시: 청산편)에 다녀 오면 세박 조기(早起)하여 이빨매를 말치로 두들기기도 하는가 하면 칠십 노객(老客)이 손녀 같은 소녀와 결혼하여 사는 화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폭군 연산군은 즉위 12년에 매일 뽕을 잡아 진상케 하여 뽕을 장복하였으며 백마(白馬)의 음경도 잘라 먹고 말의 태(胎)까지도 먹었다한다. 연산군은 '오오 잡자리'를 정력제로 먹었는데 '회동승역소(會同習役所)'는 '잡자리' 잡는 곳이었으며 또, '명주잡자리'의 애벌레인 '개미귀신'이며 '불개미'가 주식인 '개미귀

신'이 자라서 '명주잡자리'가 되었고 바로 '명주잡자리'가 되었고 제1호로 꼽힌 것이다. '고추잡자리'는 꼬미(交尾)를 한 채 하늘을 날고 꼬미 시간이 길고 하여 연산군의 정력제로 사랑을 받았다.

'미꾸라지'는 '이주환액(泥鰌潤液)'라고 하며 미꾸라지의 몸 위에 흰 설랑을 뿌려두면 미꾸라지 포에서 우러나는 점액과 설랑이 혼합되어 나오는 끈끈한 액을 말하는데 이 액이 틀림 없는 정력제라고 하는 한의사도 있다. '부추'는 숙답에 '계를맹이풀'이라고 하는데 이 부추를 먹으면 음욕이 왕성하여 게으름만 피운다고 한다. 일명 부추를 '양기조

(陽起草)라고 한다. '부추' 정력제 외에도 몽정, 조루, 소변흔탁을 다스리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인체 기능을 북돋는다고 하며 강한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대장과 소장 보호하고 허리와 무릎의 냉함과 새큰거림을 다스린다고 한의사들은 주장한다. 해독, 지혈, 음경의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예부터 절의 선비들이나 수도(修道)하는 선비는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않는다는 설이 전해오는데 이는 대장 정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오신채인 '부추' '영고' '파' '마늘' '생강'은 정력과 관계가 있겠으나 음력정원에 오신채를 먹고 일년 내내 전염병을 예방하는 풍습이 중국에 전해온다.

내 고향 포천에는 오신채는 물론 미꾸라지도 많고 잡자리도 많으니 정력과 건강에도 넘친다(?)고 볼 수 있을까(?) 잠시 세계 밥질 명인 최기종 교수의 정력제(?)를 보았다.

초대 漢詩

吟永平八景(음영평팔경)



음동연 시인

名聲八景永平疆(명성팔경영평강) 風致抱川優異鄉(풍치포천우이향)
영평 경계는 명성의 팔경이 있는데, 포천의 풍치는 다른 향리보다 뛰어났도다.

白鷺銀沙均素蓋(백로은사균소개) 仙遊鏡水綴流光(선유경수綴流光)
백로주에는 균소의 은사가 덮여있고, 선유담의 경수는 천천히 흐르는 모습이며

臥龍巖繞鮑魚鮮(와룡암요부어선) 靑鶴洞中花草芳(청학동중화초방)
와룡암 둘레 물에는 붉어져 골기만하고, 청학동 내에는 화초가 향기를구나.

亭子儒生詩詠興(정자유생시영리) 佳肴旨酒樂交觴(가요주리락교상)
금수정 유생들은 시를 읊조리고, 가요주리로 술잔을 주고 받으며 서로 즐기네.

鏡水: 거울같이 맑고 잔잔한 물.
銀沙: 은같은 흰 모래.
繞: 둘러다오
綴: 드리다(완)
英平八景: 金水亭, 樂歸亭, 臥龍峯, 蒼玉屏, 仙遊潭, 白露洞, 禾積灘, 靑鶴洞
佳肴旨酒: 맛있는 안주와 좋은 술.